



●지난 23일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열린 '도민과 함께하는 2026년 시군 방문'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심석섭 고창군수를 포함한 참석자들이 도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같은 날, 군산시청에서 열린 '도민과 함께하는 2026년 시군 방문'에 김관영 도지사와 김임준 군산시장 및 참석자들이 도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군산과 서해안 시대 열고, 고창과 지역 활력 띄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군산과 함께 서해안 시대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 또한 고창군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 발전의 새 물꼬를 툰다.

14개 시군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3일 오후 군산시청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2026년 시군 방문' 행사를 개최하고 군산시 도약을 위한 동행 비전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침수 피해 예방과 도시 지역 어항 정비,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등 군산의 미래가 담긴 현안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와 군산시가 가장 먼저 속도를 내는 분야는 지역 맞춤형 재난 예방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다.

조촌지구에는 2030년까지 408억원(도비 204억)을 투입해 배수펌프장과 빗물저류지 배수개선 시설 등을 구축한다. 미룡지구 역시 489억원 규모로 2027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2027년 행안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

김관영 도지사 2026년 시·군 방문 - 군산시 · 고창군

도민과의 대화서 도민들과 직접 소통, 지역 현안 논의
사회복지시설 · 전통시장 찾아 현장 애로사항 청취도

업 공모 대응에 적극 나선다.

도시 지역 어업인들의 오랜 숙원도 해결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99척의 어선이 등록된 개야도항은 2019년 2월 국가어항으로 승격됐음에도 6년간 개발이 지연돼 왔다. 올해 10억 원 규모의 설계 용역비가 확보되면서, 접안시설 부족으로 어선 상시 정박이 불가능해 생업에 지장을 받아 온 어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480억원을 투입해 2033년까지 방파제 연장, 호안 확충, 접안 시설 확장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산을 서해안권 해양관광 중심지로 탈바꿈시킬 금란도 향만 재개발 사업

리국악당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2026년 시군 방문' 행사를 개최하고 고창군의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밝혔다.

도와 고창군이 함께 이룬 대표 성과는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 유치다. 고창 신활력산업단지(고수면 봉산리)에 들어서는 이 물류센터는 5만 5,000평 면적에 3,000여명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으로 삼성의 전북 첫 투자 협약이라는 상징성을 지닌다. AI·디지털트윈·로봇·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된 자동화 시설로 꾸며지며, 500명 규모의 직·간접 고용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해 11월 착공식을 마쳤으며,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이 진행 중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명사십리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이 본격도에 오른다. 동호해수욕장 일원에 도비 25억원 등 51억원을 들여 다목적 문화관광지 해양레포츠타운을 조성하고, 해양테마 관광

상품 개발 등 소프트웨어 사업 병행으로 관계 인구나 관광 소비를 확대해 지역 활력을 높인다.

체육 인프라 확충도 힘을 받는다. 도는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월암저류지 파크골프장 조성에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창천 자연해위험개선지구 정비와 연계한 자연재해 예방과 주민 체육 복지·여가 활동 증진, 대화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사시시설 김치특화지구'의 실효성 제고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관광 인프라 측면에서는 신림저수지 습터 조성 사업의 제8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2027~2031년) 반영을 주력한다.

김관영 도지사는 고창군 장애인복지관 방문에 시설이용자의 의견 청취 등 복지현장을 살피고, 고창전통시장을 방문에 지역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군산=김만호기자 · 고창=김영식기자

“용인 반도체 전북 분산 배치 노력할 것”

민주 안호영 의원



국회 기후에너지산업노동위원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용인 반도체 산업 단지를 전북으로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날 대통령께 건넸던 한장의 제안서가 대통령의 말이 되어 돌아왔다”며 용인 반도체 산업의 지방 분산 배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안 의원이 언급한 제안서는 2025년 5월 7일,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진안을 방문했을 당시 직접 전달한 “지속가능한 전력망 새판짜기” 정책 제안서다.

제안서의 핵심은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과,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과도 맞아 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전기를 지방에서 생산해 송전탑을 대량으로 만들어 수도권에 몰아주는 방식은 안 된다”며 “국민이 힘을 모아주면 거대한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 발언을 두고 “그날의 대화와 정책 제안이 국정 철학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을 대선 1번 공약으로 제시했던 점을 언급하며, 일부에서 제기했던 현실성 논란에 대해 “대통령의 일관된 에너지 철학을 결해서 지켜왔기에, 용인 반도체 산업 역시 결국 지방으로 분산 배치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용인 반도체 공장은 전력난과 용수난 문제로 향후 공장 가동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서남해안 지역의 입어 전력을 송전탑을 통해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계획이 추진됐으나, 송전탑 통과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주민들은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을 준수하라”며 장기간 반대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0만호 기자

“오늘 올림픽 · 패럴림픽 홍보대사 위촉식”

도, 이번주 도정 주요일정 공개

전북도정의 이번주 주요 행사와 추진 일정이 공개됐다.

이철규 전북특별자치도 대변인은 지난 23일 오전 도정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26일부터 30일까지의 도정 주요 현안과 주간 추진 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26일 전북 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개최되는 2월 6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도의회 임시회 동안 주요 도정 현안과 각종 안건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같은 날 9시 5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 패럴림픽 홍보대사 및 홍보서포터즈 위촉식 행사가 개최된다. 전북자치도 장애인 체육회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하는 행사로 최철순 전 전북 현대 축구선수가 전북 장애인체육 홍보대사로, 김아람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와 포와 서승재 배드민턴 국가대표가 올림픽 홍보대사로 위촉된다.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전주 하계올림픽 홍보를 위한 대국민 포털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 가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다.

27일에는 신년을 맞아 전북도민복지관에서 어르신 떡국 나눔 행사가 열리고, 새만금 웹툰 산업 클러스터 조성



이철규 전북특별자치도 대변인은 지난 23일 오전 도정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26일부터 30일까지의 도정 주요 현안과 주간 추진 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식이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오후 네시부터 개최된다. 이는 관련 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첫 공식 협의체 구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8일에는 서울에서 BNP 파리바의 업무 협약(MOU)이 체결될 예정이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29일 오전에는 문화·예술·관광 분야 신년 인사회가 라한호텔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창립 10

전북선관위 “내달 3일부터 도지사 ·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등록”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지난 23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전북선관위에 △가족관계명세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선거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기탁금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

세 이하인 경우 7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여객기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발로

“도정 바라보는 시야 넓혀줬다”

김철태 도 정책기획관
대변인 시절 1년 소회
“향후 도민 체감 성과
만드는데 역량 쏟을 것”



전북특별자치도청 김철태 정책기획관의 지난 1년은 조용했지만 빈틈없이 치밀했다.

언론 경력이 전문 행정공무원이 ‘도정의 얼굴’인 대변인으로 발탁됐을 당시, 주변의 우려와 기대는 교차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김 정책기획관의 이름 앞에는 “잠을 없는 대변인”, “신뢰받는 소통 창구”라는 평가가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지난해 1월 2일 고창부군수에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변인으로 취임한 그는 정확히 365일 동안 전북도정의 최전선에서 언론과 도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전임 대변인의 여러 현안이 뒤엉켜 있던 어려운 시기였지만, 김 정책기획관은 특유의 신중함과 성실함으로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켰고, 기관과의 관계 역시 성실한 자세로 잡음 없이 원만하게 이끌었다.

그의 대변인 재임 기간은 전북도정의 성과가 연이어 결실을 맺은 시기이기도 했다. 전주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 선정, 오랜 숙원이던 대광법 통과,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 개막 등 굵직한 전북도정의 성과가 이어졌고, 김 기획관은 그 모든 순간을 브리핑의 현장에 함께 있었다.

특히, 전주 하계올림픽 후보도시 최종 선정이 발표된 2월 28일은 지금도 그의 기억에 선명하다고 전했다. 모두 무모한 도전이자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발표 현장에서 결과를 확인한 직후 대변인직 직 원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하던 순간 떨리는 손과 목소리를 감출 수 없었다고 한다.

도정의 성과가 단순한 행정적 결과가 아니라 도민의 염원과 기대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직접 느낀 간절한 순간이었다고 전했다.

김 정책기획관은 “대변인의 역할은 도정의 성과가 만들어지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언론과 도민을 함께 마주하던 자리”였으며 “힘들었지만 그만큼 보람이 큰 자리였다”고 회고한다.

언론 경험이 없다는 약점은 오히려 그의 강점이 됐다. 그는 출신기 자단체의 소통에서 형식보다 진정성을 택했다. 간사학과 정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이어가고, 매일같이 기자들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쌓아갔다. 그 결과, 대변인실은 빠르게 안정을 찾았고 “조직을 잘 추스렸다”는 내부 평가와 함께 언론의 신뢰도 얻었다.

이러한 1년의 성실한 성과는 결국 승진 인사로 이어졌다. 김철태 대변인은 1월 도정의 핵심 싱크탱크인 도정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관으로 승진 발령을 받았다.

정책기획관은 국책사업과 국가 예산 확보, 공공기관 이직 조직관리와 성과평가, 지방 균형발전 정책 추진 등 도정 발전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중책이다.

김철태 정책기획관은 “대변인으로 보낸 지난 1년은 전북도정을 바라보는 시야를 한층 넓혀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는 정책기획관으로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0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